

‘해투4’ 포맷 만지작... ‘불청’은 더 젊게

〈KBS 2TV〉

KBS ‘1박 2일’ ‘슈돌’ 새 멤버 호평
MBC ‘나 혼자’ 경수진 등 고정 기대
SBS ‘집사부일체’ 신성록 첫 예능

2020년, 지상파 방송 3사가 ‘간판 예능’의 색깔을 싹 바꾼다.

새해 초 KBS와 MBC·SBS는 꾸준히 인기를 얻어온 예능프로그램들을 새로 단장하는 데 힘을 쏟는다. tvN 등 케이블 채널의 예능프로그램처럼 시즌제로 분위기 바꾸는 대신 신선한 출연자와 포맷으로 새로운 매력을 뽐낸다. 25일 설날 연휴를 앞두고 쏟아질 새 파일럿프로그램

들 경쟁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KBS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꾀했다. 지난해 12월8일 선보인 KBS 2TV ‘1박2일’ 시즌4와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이 그 무대다. 모두 새로운 출연자로 분위기 전환을 노렸다. ‘1박2일’은 연기자 연정훈·김선호 등 예능프로그램 출연이 드물었던 인물 위주로 새 진용을 짰다. ‘슈돌’은 가수 장윤정·아나운서 도경완 가족을 투입했다.

시청자들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멤버 변화에 쏟아진 우려는 곧 ‘신선하다’는 호평으로 바뀌었다. 각각 13.6%와 12.5%(작년 12월29일, 닐슨코리아)를 기록해 KBS 내부에서는 “선전

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변화의 배턴은 ‘해피투게더4’(해투4)가 이어받는다. 프로그램은 이달 말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약 5주 동안 다양한 코너를 선보여 포맷 변화의 주춧돌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간대 변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

MBC의 간판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도 새 멤버 영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박나래·이시연 등 2017년 이후 출연자만으로는 다양한 1인 가구의 삶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다. 게스트를 초대하는 ‘무지개 라이브’ 코너는 신선함을 높이는 동시에 새 출연자를 발탁하는 무대로도 활용하

고 있다. 최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연기자 경수진 등이 좋은 반응을 등에 업고 재출연해 정식 멤버 발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SBS도 기존 예능프로그램의 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집사부일체’는 연기자 신성록을 새 멤버로 발탁해 최근 첫 촬영을 마쳤다. 기존 출연자 이승기는 “첫 순간부터 잘 어우러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타는 청춘’은 최근 방송인 안혜경·가수 이기찬 등을 투입해 출연자의 연령대를 40대 초반까지 확 낮춰 ‘젊어진’ 분위기를 강조하며 진용의 너비를 확장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11

2020년 1월 2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트와이스 나연, 스토키 상대 법적 대응



나연

걸그룹 트와이스의 나연이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려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1일 “이날 일본에서 귀국하는 비행편에 나연의 해외 스토키가 동승,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등 기내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면서 “이에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외국인은 자신이 나연과 교제 중이라는 스토킹을 의심해 하는 온라인 영상을 올렸다.

병원 입원 송해 “단순한 감기몸살”



송해

방송인 송해(93)가 1일 갑작스런 병원 입원 소식으로 시청자들의 걱정을 샀다. 송해 측은 “단순한 감기몸살 증세”라며 병원 치료 이후 정상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시청자들을 안심시켰다. 송해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때 폐렴 증세라는 추정이 나돌기도 했다. 송해는 12일 KBS 1TV ‘전국노래자랑’ 설 특집 녹화에 불참한다. 고령에도 활발한 활동을 해온 원로스타의 건강에 대한 우려에 많은 누리꾼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김우빈-김수현-강하늘, 경자년 ‘막강 젊은 피’ 뜬다

김우빈 복귀...다큐 ‘휴머니털’ 6일 첫방
김수현 기획사 설립...콘텐츠 기획까지
강하늘, 3월 1일까지 연극 ‘환상동화’

2020년 막강한 젊은 피가 온다. 새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김우빈과 김수현, 강하늘이다. 최근 데뷔 때부터 몸담은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만큼 새해를 맞는 이들의 각오 역시 남다르다.

김우빈은 2년여 공백을 딛고 마침내 복귀한다. 출발은 6일 첫 방송하는 MBC 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털’이다. 2017년 비인두암 발병으로 투병해온 그는 지난해 건강을 회복해 활동 재개를 모색해온 끝에 인간과 동물의 삶과 죽음, 공존을 모색하는 5부작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이어 ‘도둑들’ ‘암살’의 연출자 최동훈 감독의 새 영화 출연 등 연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데뷔부터 함께 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마무리한 김우빈은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두루 섭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팬미팅 무대에서 “새해엔 자주 소식을 전하겠다”고 직접 알리기도 했다.

김수현은 새해 첫날 매니지먼트사 설립을 공개하고 연기 활동을 넘어 콘텐츠 기획과



김우빈

제작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군복무를 마치고 곧장 작품에 출연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5개월 동안 잠행한 그는 사촌형 이자 영화 ‘리얼’을 함께 만든 이사랑 감독과 손잡고 골드메달리스트라는 이름의 기획사를 설립했다. 연기자 서예지, 김새론도 영입했다. 골드메달리스트 관계자는 1일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목표로 매니지먼트와 콘텐츠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김수현

통해 전지현과 더불어 중국 한류 붐을 일으켰다. ‘한한령’ 앞에서 주춤했다가 최근 재점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한류스타로서 새로운 출발에도 기대가 쏠린다.

강하늘은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성공에 힘입어 단연 2020년 활약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효진과 호흡을 맞춰 2019년 드라마를 대표하는 히트작을 내놓은 그는 증폭된 인기와 몸값 상승을 바탕으로 새해 스크린으로 향한다. 천우희와 주



강하늘

연한 멜로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이다. 드라마와는 또 다른 애뜻한 러브 스토리를 펼친다.

강하늘은 3월1일까지 공연하는 연극 ‘환상동화’ 무대부터 소화한다. 이를 마치고 영화로 향한다. 그는 지난해 12월31일 KBS 연가대상 최우수상을 받고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고 싶다”며 “좋은 연기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부터 되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손목, 발꿈치, 허리, 무릎 통증~~ 바르면 신기하게 안 아파요!!

효과빠른 신통크림

통증의 고통~ 더 이상 참지 말자!!



신통크림 적당량을 골고루 문지르면 쉽게 스며들어 끈적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

TIP. 이 부위에 사용하세요

마사지크림

스포츠/ 골프/ 등산/ 운동전후
관절통증/ 근육통증...
모든 통증이 있는 곳에 ~



신제품 출시기념 대파격 할인

1세트 5개월분(120mlX5통) 165,000원 49,800원
무이자 5개월 / 신용카드

2세트 주문시 2개더 총 12개월분 396,000원 99,600원

계좌: 농협 1661-0110-09 / 예금주: (주)건강100세 문의 ☎1661-0110